

전통기와 생산 담양 대한한옥개발 김재현 대표의 고민

‘트리플 악재’... 환란때보다 더 힘들어

〈고원자재값·고물류비용·저납품가격〉

“16년 회사경영에 요즘처럼 힘든 때가 없는 것 같아요. IMF때보다 훨씬 어려워요. 회사살림을 꾸린 다기보다 간신히 버텨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 수지(플라스틱) 콘크리트로 ‘천년와(千年瓦)’라는 신개념 전통기와를 생산, 선공적인 인기를 누리 대한한옥개발(담양군 용면)의 김재현(55) 대표는 “하루하루가 살얼음 같다”며 어려운 분위기를 토해냈다.

4~5년 전까지만 해도 해외진출 등 사업다각화를 꿈꿨던 김 대표는 최근 고원자재가, 고물류비용, 저납품가 등 ‘트리플 악재’에 시달리다 못해 해외진출이나 사업확장은 이미 포기했으며, 생산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업종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천년와’ 출시 해외시장 대박 꿈 꿔는데...

이젠 생산비 걱정 없는 업종 진출 고려중

무엇보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원자재가는 대한한옥개발의 살림을 턱막까지 압박하고 있다.

PE·PP 합성수지에다 필리핀 화산재 등 기와의 재료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들 원자재가는 지난해 대비 80%까지 치솟은 상태다. 여기에다 6월 이후 20% 주가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

김 대표는 “원자재가 전체 제조원가의 절반을 훌쩍 웃돌아 국제적인 환경변화가 없는 한 적자를 면할 수 없게 됐다”고 걱정했다.

경유가의 고공행진으로 인한 물

류비 부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경유 소비자는 지난 1월 1ℓ 당 1천400원에서 6월 현재 1천950원대까지 39% 올랐다. 이에 따라 담양에서 서울까지 제품을 운송할 경우 화물트럭 1대당 추가 물류부담은 경유를 포함해 20~30% 상승하게 됐다.

김 대표는 “지난해까지 물류비용은 1천만을 밑돌았으나, 경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1천300만원대에 육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원자재와 물류비가 급증한 반면 제품 판매가는 3~4년부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채산성 악

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전통기와의 5배에 달하는 내구성과 내화성, 방음성은 물론 뛰어난 내진(耐震)성을 지닌 ‘천년와’에 힘입어 대한한옥재단은 3년 전 국내 시장을 제패한 뒤 세계시장을 본격 노크할 계획이었다.

‘천년와’ 출시이후 2년만에 연 매출도 50억원에서 200억원까지 수직 상승했다. 그러나 3중고에 시달리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70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표는 “최근 불경기 여파로 수요가 급감한 상황에서 제품가를 올릴 수 없는데다, 생산비는 자꾸 올라 어렵다는 소리밖에 나오지 않는다”면서 “황토·목재 등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업종에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삼우중공업, 울촌산단 선박기자재공장 기공

3년간 2700억 투입...2015년 매출 1조원

삼우중공업(주)(대표 정병주)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전남 울촌산단에서 지난 13일 대단위 선박기자재공장 기공식을 가졌다.〈사진〉

이날 기공식에는 백옥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성웅 광양시장, 허남석 포스코 광양제철소장과 삼우직원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삼우중공업은 선박기자재 분야에서 쌓아온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3년간 2천700억원을 투입해 59만5천여㎡(18만여평)의 부지에 선박구조물 공장, 중

형급의 선박 프로펠러 및 축계공장, 철강가공공장 등을 단계적으로 건설하게 된다.

이에 앞서 삼우는 지난해 2월 전남도·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등과 투자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올 5월 355m 길이의 전용안벽 축조공사를 시작했다.

삼우 관계자는 “이미 국내 대형조선소들과 선박구조물 공급에 관한 MOU를 체결하거나 납기협의를 진행중”이라며 “오는 2015년 매출 1조원 달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대한조신기술교육원 ‘중기직업훈련컨소시엄’ 선정

“경쟁력 있는 조선인력 양성”

대한조신기술교육원(원장 김영근)은 최근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2008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신규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조신기술교육원은 정부로부터 앞으로 최장 6년간 시설 및 장비지원금 등을 지원받아 조선기술인력 양성과 기술향상을 위해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김영근 기술교육원장은 “난 3개월 동안 서류심사, 현장심사, 프레젠테이션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통보를 받았다”며 “기술교육원은 이번 선정을 계기로 보다 경쟁력있는 조선기술인력 양성 전문교육원으로 발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조신기술교육원은 지난 2007년 10월 개원한 이래 1기 기술연수생 148명과 2기 기술연수생 221명 등 모두 369명의 연수생들을 배출해 대한조선 협력회사에 취업시킨 바 있다.

현재 3기 기술연수생 200여명이 입

소해 융접 기능사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지원사업은 대기업 또는 대학이 훈련시설이나 예산 등이 열세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과 함께 구성한 것으로,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광주시, 러 등 3國 시장 개척 나선다

개척단 터키·이집트도 파견

광주시 해외시장 개척단이 16일부터 9일 동안 러시아 모스크바를 비롯해 터키 이스탄불, 이집트 카이로 등 3개국에서 시장개척 활동을 펼친다.

지난 4월 북미지역에 이어 올들어 두번째인 이번 시장개척 활동에는 기



전남도 물산전

광주신세계 이마트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제 4회 전라남도 물산전’을 열어, 60개 농업인 단체와 식품가공업체들이 생산한 400여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유망 바이어 발굴 등 치밀한 준비를 해왔다.

시는 자체조사결과 IT산업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러시아가 광주의 광통신 부품과 모바일산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이번 개척활동에 기대를 걸고 있다.

또 터키와 이집트 등지에서는 금형산업과 기계업체 등과 적극적인 교류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우수 벤처창업 아이디어 발굴합니다

중기청 ‘2008년 광주·전남 창업경진대회’ 개최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박춘근)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기술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우수 벤처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오는 25일 지방청 회의실에서 ‘2008년 광주·전남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창업아이디어나 아이

템 등 우수 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한 개인 또는 단체(팀)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지식서비스, 정보통신, 유통, 제조, 도소매 등 전 분야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학생이 아닌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다. 대학(원) 재학생 부

문인 학생부와 교수 및 연구원 등 일

반 예비창업자를 위한 일반부로 구분해 기술성, 사업성이 우수한 5개 팀을 선정한다. 선정팀에 대해서는 시상 및 상품 등을 수여하고 최우수 1인에게 해외연수의 기회도 제공한다.

참가희망자는 홈페이지(http://gj.smba.go.kr)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직접 또는 우편으로 20일까지 광주·전남중소기업청에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조정협력과(062-360-9113)로 문의하면 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남평농협 김병원 조합장 중앙회 이사 당선

광주세관, 수출화물 통관지원



김병원(55) 남주 남평농협 조합장이 지난 12일 농협중앙회 대의원 총회에서 농협중앙회 이사로 최종 당선됐다.

4년간의 새로운 임기를 맡게 된다. 김 조합장은 “지역농협의 자립경영, 지자체 협력사업 예산확대, 상호금융제도 개선, 조합장 위상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희망의 전남농협’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

혔다. 김 조합장은 1978년 농협에 입사해 부장·상무·전무 등을 거친 뒤 99년 남평농협 조합장으로 취임했다.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객도사업, 토양검정, 추곡전량 정부수매 등 사업을 펼쳤고, ‘왕건이 탐낸쌀’ 브랜드화를 추진해 2005년부터 3년연속 전국 12대 우수쌀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 조합장은 현재 전국 무·배추협의회 회장, 농림부 양곡정책심의위원회 위원, 21세기 자치발전 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광주세관(세관장 김두기)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수출화물의 선적 지연 및 수입원자재의 적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입화물 특별통관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광주세관에 “24시간 비상통관지원팀”을 편성, 상시 통관체계를 구축하고 수출화물의 선적의무기간을 현행 30일에서 화물처리기간 정상화될 때까지 추가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수입원자재 등의 적기조달 지원을 위해 보세운송신고를 임시개청, 수수료 없이 24시간 처리해줄 예정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Happy City' (행복한 도시마을) featuring various agricultural products and services. It includes images of greenhouses, fields, and people working in the fields. Text highlights the benefits of the program, such as providing a stable income and creating jobs in rural areas.

Advertisement for 'Boram Sangjo' (보람상조) featuring a man in a white shirt and a woman in a black shirt. The text promotes the company's services, including providing a stable income and creating jobs in rural areas. It also mentions the company's commitment to social responsibility and community development.